



## 정규과정 - TV다큐멘터리의 이론과 실제

---

주제: 8,90년대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의 시작

〈TV다큐멘터리의 이론과 실제〉 과정의  
‘독립 다큐멘터리의 현재와 미래’ 차시를  
보충 · 심화하여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튜터 백승이

한국의 다큐멘터리는 초기에는 TV채널을 위주로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1990년대 중반까지 영화나 비디오제작이  
엄격한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독립적인 영상제작은 1970년대 대학 연극영화과나 영화동아리의 실습작품이나 졸업영화제, 아마추어 영상그룹 활동 등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 비디오카메라가 급속한 속도로 보급되면서 이러한 영상제작 활동들은 더욱 활발해졌다.

다큐멘터리영화는 이와 같은 독립영화의 발전 과정에서 함께 생성되었다.

특히 1980년, 누군가에 의해 배포된 광주 민주항쟁의 영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상매체의 영향력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 이후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중 하나로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일들이 잦아졌다.

특히 방송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은폐된 진실들을 보여주면서

다큐멘터리영화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8, 90년대의 독립 다큐멘터리 작품들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이라는 주제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

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더 다양한 주제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 시작할 수 있었다.

8, 90년대에 나왔던 다큐멘터리를  
모두 살펴볼 순 없지만,  
큰 족적을 남긴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독립 다큐멘터리의 시작과  
그 발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래의 영상들은 모두 <한국영상자료원>의 영상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다.

<https://www.koreafilm.or.kr/library/main>

1. <판 놀이 아리랑>

1985년 제작/상영시간 18분

감독 박광수, 김홍준 , 황규덕, 문원립

최초의 독립 다큐멘터리로

극단 연우무대의 <판 놀이 아리랑 고개> 공연을 영화로 재구성한 다큐적 영화이다.

이 영화의 특색은 영상과 음향의 분리라는 점인데

공연 준비장 스케치-공연장-분장실-공연 사진으로 이어지는 영상과

공연실황-인터뷰-연우무대 총평모임을 녹음한 음향이 결합되어 있다.

2. <어둠을 뚫고 태양이 솟을 때까지: 구로 항쟁의 진상을 밝힌다>

1987년 제작/상영시간 27분

감독 이상빈

87년 대선, 구로 선거구에서 발견된 부정 투표의 증거와

그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담은 영상이다.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투표함은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2016년도에 공개 개함 되기도 했다.

3. <상계동 올림픽>

1988년 제작/상영시간 27분

감독 김동원

1988년 서울올림픽이 유치되면서 서울 200여 곳의 재개발 지역 시민들이 이주하게 된다. 이 작품의 감독인 김동원 감독은 3년간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생존투쟁을 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이 작품은 한국 다큐멘터리로는 최초로 일본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다.

4. <낮은 목소리> 시리즈

1995년~1999년까지 제작된 3편의 연작

감독 변영주

일본군 성노예의 경험을 지닌 할머니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작품이다.

또한 ‘기록영화사 보임’이라는 독립 제작사를 통해 기획에서 제작, 배급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독자적인 제작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도했으며, 극장에서 개봉된 최초의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로 이후 독립 영화 제작, 배급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되기도 했다.

5. <명성, 그 6일의 기록>

1997년 제작/상영시간 74분

감독 김동원

19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6일간의 명동성당 농성투쟁에 관한 기록이다.  
6월 10일 밤 경찰에 쫓겨 명동성당에 우연히 모이게 된 수백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농성을 벌이게 되는 과정을 담은 작품으로  
농성을 둘러싼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들과 농성대들이 품은 희망과 각자의  
갈등상황들을 풍부한 자료화면과 증언으로 담아냈다.  
또한, 명동성당 농성투쟁의 전개와 해산 과정 등을 보여줌으로써  
6월 항쟁의 가능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기도 했다.  
제28회 베를린영화제 뉴시네마 부문에 초청되어 상영되기도 했다.

6. <변방에서 중심으로 - 독립영화에 대한 특별한 시선>

1997년 제작/상영시간 64분

감독 홍형숙

독립영화와 독립영화인에 대한 서울 영상집단의 '특별한 시선'을 담은 작품이다.  
독립영화인들의 자성과 딜레마, 금지와 신념, 독립영화의 현재 등  
독립영화와 독립영화인에 대한 서울 영상집단의 '특별한 시선'을 다루었으며,  
독립영화계 내부를 성찰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독립영화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참고문헌 및 출처>

- 한국독립영화의 역사1(by 한국영상자료원)

<https://artsandculture.google.com/exhibit/wQycPJch?hl=ko>

- (기사) 독립 다큐멘터리 20년 역사 한눈에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0193932](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0193932)